서울대 '교과 통합형 논술' 도입

■ 내신 비중 확대…2008大入 요강 변경 내용

연세대, 수시 1학기 선발 폐지
고려대, 논술-학생부 50대50

전국 20여개 국·사립대학들이 2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지난해 대학별로 발표됐던 기본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당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및 수능 9등급제가 도입되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과 심층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서울대의 경우 수능 성적을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키로 하고 정시모집에 '교과통합형 논술고사'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내신 교과 성적에 중점을 두는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특기자전형',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시모집'등 현행 입학전형 제도의 골간이 유지되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도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연세대는 수시 1학기 선발 폐지로 해당 정원이 수시 2학기의 '일반우수자전형'과 '특별전형'에 합쳐진다. 모집시기별 선발비율(수시 50%·정시 50%)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자연계에 논술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시모집 반영비율은 당초 학생부 40%, 수능 50%, 대학별 고사 10% 수준으로 논의돼 왔으나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려대는 정시 일반전형의 경우 논술과 학생부의 비중을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다. 모집비율이 35%와 55%였던 수시2학기와 정시모집을 각각 40%와 50% 내외로 변경해 정시모집의 비율을 줄이고 수시2학기 모집 비율을 소폭 높였다.

서강대는 학생부와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학교생활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수시모집 선발비율을 현행 56%에서 2008학년도 66%로 늘린다. 특정분야 우수자와 특수목적고 학생 등을 위한 동일계 특별전형이 신설되며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계열 논술이 도입된다. 정시모집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학생부 20%, 수능 60%, 대학별 고사 20% 수준으로 거론됐으나 대폭 재조정될 전망이다.

성균관대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60%로 정해졌던 면접형 전형의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논술형 전형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40%에서 5~10% 상향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내신 비중을 50% 내외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양대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전공적성이나 심층면접 등의 반영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춘다. 정시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을 현행 55%에서 2008학년도에는 50%로 낮추고 인문계열 논술 비중을 5%에서 10%로 늘릴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수시모집 선발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린다. 정시모집 반영비율은 학생부 40%, 수능 40%, 대학별 고사 20% 수준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재조정될 전망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천 기름띠 오염 광주천이 2일 낮 갑자기 기름띠로 오염됐다. 광주시는 인근 식당에서 하수구로 돼지고기 내장 등을 버리는 바람에 하수관이 막혀, 부유물질이 광주천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고 흡착포 등을 이용, 제거작업을 벌였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상의 회장단 직무정지

광주지법, 금호 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가 부당하게 치러졌다며 금호 측이 신임 회장단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마형렬 현 회장 등은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상의회장단 직무가 정지되고 광주상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관련기사 10면〉

광주지방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종합금융(대표 이기수)과 거림건설(대표 박석배)이 광주상의 마형렬 회장과 문덕형 상근부회장, 박흥석·김홍균 부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의선거는) 선거 규정을 위반한 대리투표가 적어도 90개 업체에 의해 시행됐고, 선거권이 없는 폐업 4개 업체가 투표에 참가해 위법'이라며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 측의 요구는 거절한 반면, 마형렬 측은 선거 당시 광주상의 회장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권·수정권 및 확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원칙을 현저히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의 투표방식이나 후보자별 득표수, 임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의 투표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이 같은 위법행위가 (상의)의원 당선인 결정 및 의원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호와 남양건설 측이 추천한 광주상의 직무대행자는 추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리에서 금호 측은 (주)무등 김국웅 회장과 고제철 금광기업 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추천했으며, 남양 측은 매일유업 정상길 고문과 김규룡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영진건설 대표)을 내세웠다.

광주지법의 가처분 인용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상의 의원선거와 임원선출 무효확인 청구소송인 본안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에 이어 의원선거와 임원선출마저 무효로 판단할 경우 19대 광주상의 회장선거는 다시 치러질 수밖에 없다.

한편 금호 측은 지난 3월8일 상의선거 후 ▲제19대 의원선거 및 임원선출 무효확인 청구 소송(3월27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3월28일)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업체 직원들이 837만명 개인정보 유출

1인당 227원꼴 받고 넘겨

국내 초고속인터넷통신 전체 가입자 1천240만명의 67.5%에 해당하는 837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온세통신 전직원 김모(49)씨와 하나로통신 전직원 정모(37)씨 등 2개사 전·현직 4명을 구속하고, 두루넷 신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가입자 정보를 빼내 다른 통신업체 전환가입에 이용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안모(37)·박모(34)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온세·하나로통신과 7개 텔레마케팅업체 등 9개 법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온세통신 전직원 김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온세통신 가입자 44만명 전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담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업자 안씨에게 1인당 227원씩 1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또 하나로통신 전·현직원들은 2천500만원을 주고 두루넷 40만명의 정보를 입수, 텔레마케팅업자 박씨에게 넘긴 뒤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마케팅업자 20명은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고객들을 다른 통신업체로 전환가입시키는 대가로 해당 통신업체로부터 270만~11억7천만원씩(1건당 12만~20만원) 모두 30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4개 인터넷통신업체(KT 190만명, 하나로 451만명, 온세 44만명, 두루넷 152만명 : 두루넷은 하나로에 올해 초 합병) 가입자가 모두 포함됐다. /연합뉴스

前 도의원이 '민원 장사'

"단체장 통해 해결" 금품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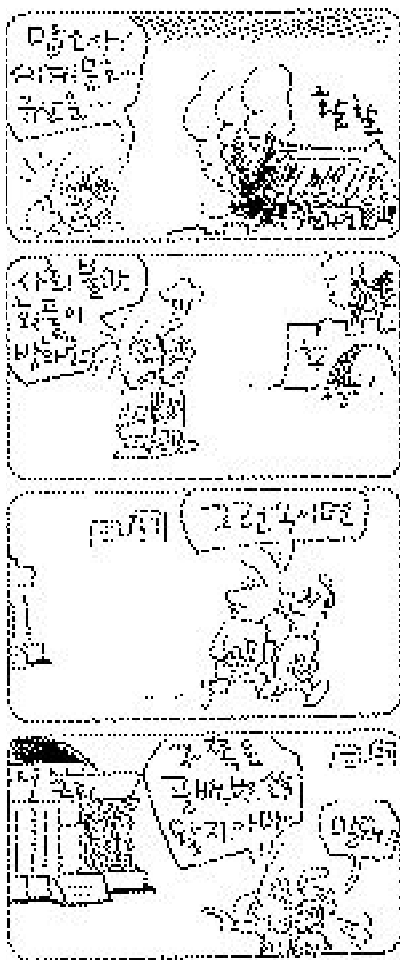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친분이 있는 자치단체장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전남도의원 N(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수정동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는 I건설사 현장소장 신모(50)씨에게 "평소 잘 알고 있는 시장에게 부탁해 재건축과 관련한 대부·연체료가 삭감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N씨는 삭감될 대부·연체료의 10%인 2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무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워참 〈6819〉 김종두



훔친 차 이용 갈취 7명 입건

영암경찰은 2일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중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가로 챈 목포 모 고등학교 2년 H(17)군 등 중·고교생 7명을 입건·조사 중이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경찰지구대서 '간 큰 절도'

쌍나팔

○…경찰지구대로 연행된 30대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슬쩍했다가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3)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30분께 북구 신안동 S유흥주점에서 마신 술값 17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역전지구대에 연행됐는데, 만취상태로 길에서 잠을 자다가 지구대로 옮겨진 서모(26)씨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과 현금 5천원을 훔치다 발각됐다는 것.

○…박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돈이 없어 택시비나 마련해 볼려는 생각에 나쁜 마음을 품은 것 같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